





# 교토대학교 만화프로젝트

## 제작기





과제가 너무 많아서

형조 중 해줄래?

일단 지켜보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학생들이 함께 하는 공동제작이라니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협력하죠.

학생들의 반응이 별로여서 만화 그릴 학생들이 모이지 않아

무리야.

난 공동제작 싫어.

뭐야... 일정도 안 정해졌고 취재도 구체적이지 않고

일 해 보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지



잠깐만! 그럼 내년 2월에 원고 완성하는 건 절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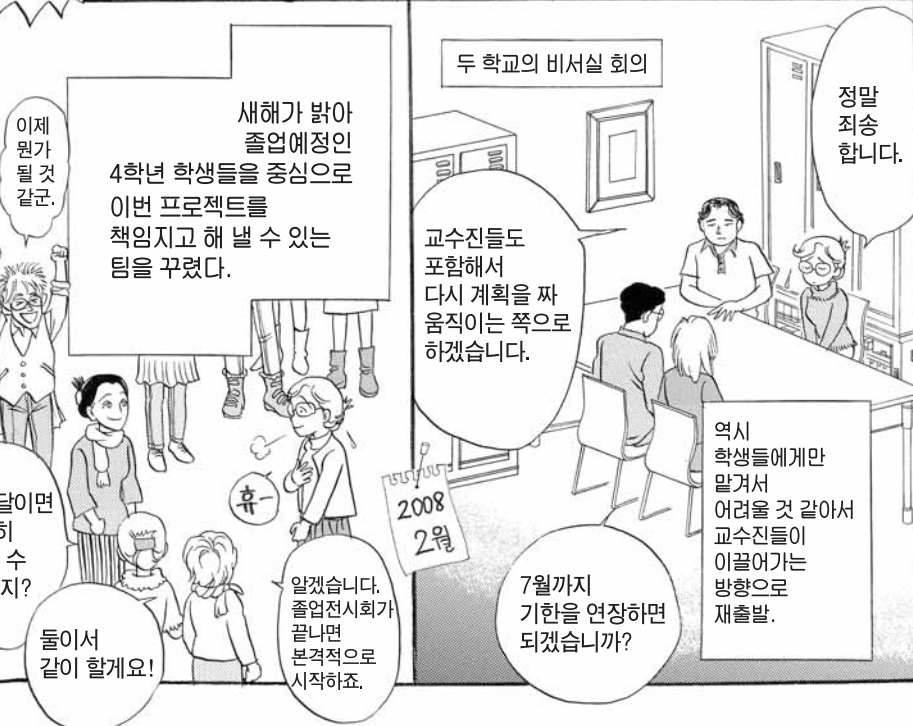
큰일 났네

무리야!!

산더미같은 과제물

취재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팀은 필드워크 팀 뿐이에요...

일년이 지나도록 담당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두 학교의 비서실 회의

이제 뭐가 될 것 같군.

새해가 밝아 졸업예정인 4학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해 낼 수 있는 팀을 꾸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교수진들도 포함해서 다시 계획을 짜 움직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섯달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겠지?

둘이서 같이 할게요!

휴-

알겠습니다. 졸업전시회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역시 학생들에게만 맡겨서 어려울 것 같아서 교수진들이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재출발.

7월까지 기한을 연장하면 되겠습니까?

2008 2월

물론!

오이케 총장님과  
시마모토 학장님께서도  
참석하십니다.

예?

중간발표회란 게  
있어요?

그러나,  
대학간  
공동제작이란  
생각보다 힘들었다.

단호 하게

익숙치 않은  
프레젠테이션으로  
만화와 학생들은  
진땀을 빼고

프레젠테이션이란 게  
해본 적도 없는데~

저장거린 영상하는 그림영극식  
프레젠테이션은 준비

아...

이러 저러 해서  
그렇게 되는  
줄거리를  
예정중입니다.

아직 정리도  
안된 거지만

### 혁신적인 발표회상

2008  
4월

사회생활의 맛도  
특특히 본  
마감일 소동도  
있었지만

교육적  
지도!

2008  
6월

별로  
엷매이지 않고  
일하는  
작업환경 밖에  
모르는지라

겨우  
뭔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림콘티제출이  
3일 늦어  
야단도 맞고

자료가  
도착 안 한  
문제는...

아네요!  
금요일날  
보냈는데  
사무처리가 늦어져서  
월요일에 도착한  
팁도 있고

만화  
레이아웃  
설계도

바깥세상은  
그런 거야.  
만화는  
제작팀 중심이긴  
하지만.

한 번  
늦춘  
적이  
있어서  
변명도  
못 하고...

그제  
말도 안 돼~



대학원실에  
작업실을  
꾸려  
공동작업을  
진행했다.

그러자  
새로운  
방향도  
보이기  
시작했다.

이 부분  
좀  
그려줄래?

O.K.  
책장  
이네요.

잘  
되어  
가능군!

만화는  
역시  
공동작업실에서  
해야 해.

이런 모습을  
진작에 보고 싶었어.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니까...



그럼 여러분!

다음 페이지부터  
'교토대학교  
종합 박물관'의 하루를  
만화로  
소개하겠습니다!

교토대학교의 학생들이  
재미있게 가르쳐 주는  
어린이 과학교실도 있어요.

엄마랑  
가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http://www.museum.kyoto-u.ac.jp/index\\_e.htm](http://www.museum.kyoto-u.ac.jp/index_e.htm)